

도시철도 2호선 건설 공론화 협치행정 정립

광주시민권익위원회 출범 1주년 성과보고회 현장중심 시민소통 강화 등 향후 방향 제시

출범 1년을 맞은 광주시민권익위원회가 7일 광주시청에서 1주년 성과보고회를 열었다.

광주시민권익위원회(위원장 최영태 전남대 교수)는 이날 오전 10시 광주시청 1층 시민실에서 이용섭 시장을 비롯해 시민권익위원장과 시민권익위원, 시민들이 참여한 가운데 '광주시민권익위원회 출범 1주년

성과보고회'를 가졌다.

이들은 성과보고회에서 시민권익위 활동 동영상을 비롯해 활동성과를 시민에 보고하고, 미래비전을 담은 선언문을 채택했다.

시민권익위원회는 지난 1년 활동성과로 ▲광주도시철도 2호선 건설 공론화로 협치행정의 성공모델 정립 ▲'현장중심'의 날' 운영으로 시민불편 해결 ▲'시민소통

현장간담회' 통해 장기민원 해법모색 ▲온라인 민주의 플랫폼 '바로소통 광주' 운영으로 시민이 참여하는 생활 민주주의 도입·실현을 꼽았다. 또한 ▲현장중심 시민권익 향상 ▲'바로소통 광주'를 생활형 민주주의 플랫폼으로 정착 등 앞으로 추진 방향성도 제시했다.

최영태 시민권익위원장은 "지난 1년은 시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시민과 현장에서 소통하는 시민권익위의 토대와 시스템을 만들었다"며 "앞으로는 시민들의 일

상생활 속에 나타난 불편사항 해소와 더불어 시민의 입장에서 해결방안을 찾는 현장중심 시민소통 시스템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이용섭 시장은 "지역사회의 분열과 갈등을 해소하고 민생속에서 시민들의 권익을 향상시키기 위해 앞장서 오신 시민권익위원회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며 "앞으로도 열린 소통창구로서, 시민봉사기구로서 큰 역할을 해 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



7일 오전 광주시청 1층 시민실에서 열린 '시민권익위원회 출범 1주년 기념식'에서 이용섭 광주시장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최현배 기자 choi@kwangju.co.kr

지역 대학생들 마스터즈수영대회 성공개최 힘 보태

광주-전남대학생총합 경기 응원

광주와 전남 대학생들이 '2019 광주 세계마스터즈수영선수권대회' 성공개최에 힘을 보탰다.

광주시와 광주-전남대학생 총합학생회 대학생 100여명은 7일 남부대학교 시립 국제수영장에서 수구 경기를 응원했다. 이날 응원에 참여한 대학생들은 시민 서포터즈 유니폼과 모자를 착용하고 대회 슬로건인 '평화의 물결 속으로'가 새겨진 부채와 스포츠 타월을 이용한 응원으로 선수들의 사기를 북돋았다.

전대현 광주-전남대학생총합학생회의장은 "광주 시민으로서 세계 5대 메가스포츠인 수영선수권대회를 개최했다

는 사실에 자부심을 느낀다"면서 "광주수영대회를 통해 광주의 글로벌 이미지를 제고시키고 국제도시 홍보에 적극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이날 응원에 함께 참석한 정종제 행정부시장은 "학과와 취업준비로 바쁜 지역의 대학생들이 소중한 시간을 내어 자발적으로 응원에 참여해 줬고 감사하다"면서 "광주-전남대학생총합학생회의 이번 응원은 참여 자체만으로 상징성이 매우 크고 대회 성공개최에 큰 힘이 된다"고 말했다.

한편, 광주-전남대학생총합학생회는 광주-전남 13개 대학 총합학생회로 구성된 협의체로 봉사활동, 청년취업정책제안 등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최권일 기자 cki@kwangju.co.kr

전남·경남 연결 SOC 확충 등 의견 수렴

전남도, 내일 나주시 남해안권 발전 계획 변경 공청회

전남도는 9일 오후 2시 나주 혁신도시 내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서 도민, 공무원, 관계 전문가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남해안권 발전 종합계획 변경(안)' 공청회를 개최한다.

'남해안권 발전 종합계획 변경(안)' 공청회는 전남도와 경남도가 공동 주최하고 광주전남연구원과 경남연구원이 주관해 열린다. 2010년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에 따라 수립된 종합계획을 그동안의 여건 변화를 고려한 변경(안)에 대해 전문가 토론회와 주민 등 의견 수렴을 하기 위해 마련됐다.

발표자로 나서는 신동훈 광주전남연구원 박사는 남해안권 발전 종합계획 변경(안)의 배경 및 목적, 남해안권 발전 기본구상, 전략별 발전계획 등을 제시할 예

정이다. 이번 공청회에서 발표되는 주요 변경안은 ▲당초 66개 사업, 10조1054억 원 규모였던 해안권 발전종합계획 효율화에 따른 사업계획을 47개 사업, 9조8852억 원으로 조정 ▲차세대 신소재산업 연관단지 구축 등 미래형 산업 육성 ▲연륙·연도교, 도로·철도 등 산업 및 관광거점 연결을 위한 SOC 확충 ▲동서해저터널 및 남도2대교 등 영·호남 상생협력 사업 등이다.

토론에는 이종화 목포대 교수가 좌장인 변경(안)에 대해 전문가 토론회와 주민 등 의견 수렴을 하기 위해 마련됐다.

발표자로 나서는 신동훈 광주전남연구원 박사는 남해안권 발전 종합계획 변경(안)의 배경 및 목적, 남해안권 발전 기본구상, 전략별 발전계획 등을 제시할 예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전남도, 日 수출규제 피해 기업 지방세·자금 지원

김영록지사 여수·순천·광양서 현장 간담회

전남도는 최근 일본의 수출규제와 관련해 피해가 예상되는 기업을 찾아 대책을 강구하고, 지방세 지원을 강화하는 등 적극 행정에 나서고 있다.

김영록 전남지사는 7일 전남테크노파크에서 일본 수출 규제 피해 발생이 우려되는 여수, 순천, 광양 지역의 화학·금속산업 기업인 등과 현장 간담회를 갖고 예상되는 문제점과 피해 최소화 방안을 논의했다.

간담회에는 광양만권 기업인 21명을 비롯해 전남TP, 전남중소기업진흥원, 광주-전남중소벤처기업청 관계자 등 27명이 참석했다.

여수, 순천, 광양 지역에 밀집해 있는 화학·금속산업의 경우 전남지역 산업 가운데 일본 수입액이 가장 많은 분야로, 2018년 기준 일본 전체 수입액 중 52.3%에 달한다. 이 때문에 일본의 백색국가 제외에 따른 지역 기업의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김 지사는 이날 "일본 수출규제는 단순한 무역보복이 아닌 경제침략으로, 추가로 확대되고 장기화할 경우 전남 기업들도 어려운 상황을 맞이할 수 있다"며 "전남 기업 피해 최소화를 위한 단기대책을 세워 추진하고, 핵심 소재부품 분야에서 일본의 기술을 추월하는 국산화 사업에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전남도는 자체적으로 준비하고 있는 '중소기업 긴급 경영안정자금 지원(3~5억, 대출금 이자 지원 2.5%~3.0%)', '지방세 1년 정수유예', '수출규제 피해 접수처 운영', '핵심소재 산업 발전을 위한 연구개발(R&D)과 인프라 확충 방안' 등을 설명하고 기업의 적극적인 활용과 참여도 요청했다.

중량물 운송용 트럭 제조기업인 라인호(주)의 박중혁 이사는 "핵심 설비인 전자 제어 시스템 CPU의 90% 이상이 일본산이어서 국산화 추진이 시급하므로, R&D 과제 수행에 필요한 지원이 절실하다"고

건의했다.

전남도는 6일 일본 수출규제 대응 민관협의회 제1차 회의를 열고, 각계 전문가, 기업 관계자 등과 피해 대책 수립을 논의한 바 있다.

한편 현재 추진중인 일본 기업의 투자 유치는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여수산단 내 남해화학은 지난 1일 일본 업체와 500억원의 합작투자 실무회의를 개최했으며, 오는 2020년 2월 투자 협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전남도내 일본 기업의 투자 규모는 2억8700만 달러다.

다만 국내 일본행 여행객이 급감하면서 도쿄·오사카·후쿠오카·오이타·키타큐슈 등 일본 5개 지역의 항공노선은 기존 주 24회에서 12회로 대폭 줄었다.

8월 단체 여행객을 중심으로 예약을 취소하면서 탑승률이 급감하고 있으며, 9~10월 탑승 예약이 본격화되는 8월 중순 이후에는 더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항공업계는 전망하고 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9월 순천만 정원 일대서 개최

대한민국 균형발전박람회

엠블럼·슬로건 확정 공개

9월 25일부터 3일간 순천만 국가정원 일대에서 펼쳐지는 '2019 대한민국 균형발전박람회'의 엠블럼과 슬로건 등이 확정, 공개됐다.

올해 대한민국 균형발전박람회는 2004년 첫 개최 이후 처음으로 대도시가 아닌 강소도시에서 개최된다.

6일 전남도에 따르면 '2019 대한민국 균형발전박람회'는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산업통상자원부, 17개 시·도가 주최하고, 전남도, 순천시,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한국생산성본부 등이 주관한다.

엠블럼은 자연과 사람, 도시와 지역이 어우러져 균형 잡힌 대한민국을 함께 만들어가는 박람회를 형상화했다. 또 붓터치로 전남의 풍요로운 강과 들녘을 형상화하고 희망의 이미지 속에 사람과 도시의 모습을 담아 엠블럼의 의미를 확대한 포스터도 함께 공개됐다. '2019 대한민국 균형발전박람회' 자세한 정보는 누리집(<http://goregion.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9월부터 번호판 8자리...주차시스템 업데이트 점검

광주시, 30일까지 시·구 합동

광주시는 다음달 1일부터 자동차 번호 체계가 7자리에서 8자리로 개편됨에 따라 차량번호 인식시스템을 운영하는 주차시설은 378곳이며, 주차시스템 업데이트를 위한 점검에 들어간다고 8일 밝혔다.

점검 기간은 오는 12일부터 30일까지이며, 5개 자치구와 함께 진행한다고 광주시는 덧붙였다.

광주시·자치구 관계 공무원 12명으로 구성된 점검반은 업데이트를 마친 곳은 신규 번호판에 정상 작동하는지 살피고,

완료되지 않은 시설에는 9월 이전에 조속히 마칠 것을 당부할 예정이다.

광주시에 따르면 7월 말 현재 광주지역 차량번호 인식시스템을 운영하는 주차시설은 378곳이며, 주차시스템 업데이트 착수율은 83%(314곳), 완료율은 15.3%(58곳)이다.

현재 주차시스템 업데이트에는 50만 원에서 400만원 가량 소요되지만 국가에서 보조하거나 강제하는 규정이 없어 9월부터 8자리 번호판 차량이 운행되면 차량 진출입에 혼선이 빚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김형호 기자 khh@

광주보청기 난청센터

보청기

무료체험·출장

직접 체험 후 결정!!

✓ 잠음없이 깨끗한 소리 062)362-3336

✓ 웅웅~ 울리지 않는 보청기 광주 돌고개 2번출구 대형약국 3층

815

한국 금융의 힘

신협 815해방대출

3.1%~8.15% 금리로 대한민국 서민을 고리사채로부터 지키겠습니다

각종 불법, 탈법 고금리로 빌린 무서운 고리채, 그로 인해 고통받는 서민과 소상공인을 신협이 해방시켜 드립니다. 순수 국내자본 신협이, 대한민국 서민을 평생 든든히 지키겠습니다

한국 신협은 117개국 2,400조 자산 규모의 세계신협연맹의 아시아 회장국으로서, 전세계 빈곤 퇴치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상담문의 080-815-8150
※ 상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상단 QR코드를 참고하세요

알고 계시나요? 신협의 7대 포용금융 프로젝트

- 고금리 대출을 3%~8.15%로 대환해 드리는 815 대출
- 다자녀 무주택 가구에 2.4% 내외로 최대 3억 원까지 대출
- 지역경제까지 생각하는 지역특화산업 부활(전주 한지)
- 자영업·소상공인의 경제활동 돕는 지원센터 설치
- 군산·거제 등 고령·산림 위기지역 1천여 무담보·무이자 대출
- 3~7세 아동·65세 이상 차제노인 위치알리미 무료 보급
- 65세 이상 조합원 헬스케어(아부바 휴(休)예약)

평생 아부바 신협